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WSJ: 파월 연준 의장, 의장직 사퇴 후 이사직 유지 여부에 침묵
- WSJ: 세계 은행, “미국 경제 계속 성장할 수 있어”
- WSJ: 11월 미 무역 적자 늘었다
- Reuters: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약간 하락했다

#### [트럼프 행정부]

- Bloomberg: 공화당과 민주당, 셧다운 막기 위한 논의 진전

#### [무역 전쟁]

- YahooFinance: 주중 미 대사 중국의 글로벌 제조 지배력에 경고

#### [에너지]

- Bloomberg: 구리 급등...1톤에 \$14,500...중국 구매 주도
- Bloomberg: 트럼프의 이란 공격 위협에 브렌트유 70불 돌파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AI 등으로 미 기업들 계속 일자리 축소
- YahooFinance: 일런 머스크 “테슬라 미래는 전기차를 넘어선다”

### [미국 경제]

---

#### WSJ: Why Powell Won't Say if He Is Staying on the Fed Board

#### 파월 연준 의장, 의장직 사퇴 후 이사직 유지 여부에 침묵

- 파월 의장은 오는 5월 15일 의장 사임 후에 이사직으로 계속있게 되어있다. 그런데 그는 이사직에 계속 남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있다.
- 연방 법무부는 최근 연준 건물 개보수 관련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직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파월의 결정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일부에서 는 법무부의 조사가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다.
- 앞으로 파월의 이사직 지속 여부에 대한 선택은 연준 이사직 공석을 채우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사

#### WSJ: U.S. Economy May Be Experiencing Step Up in Potential Growth, World Bank Says

#### 세계 은행, “미국 경제 계속 성장할 수 있어”

- 세계은행은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아마도 경제성장률이 2.2%나 2.4%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이 기관은 미국 경제가 2025년에 2.1% 성장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지난 2022년 이래 연평균 2.6% 성장한 것으로 파악한다.

- 글로벌 경제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의 혜택으로 중기 기간 동안에 성장률이 0.1%에서 0.8%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

## WSJ: U.S. Trade Deficit Grew in November

### 11월 미 무역 적자 늘었다

- 미 무역 적자가 전월에 비해 두 배나 증가했다. 10월에 적자 규모가 2백92 억달러에서 11월에 5백68억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 수출은 3.6% 증가한 2천9백21억 달러였던 반면에 11월의 수입은 상대적으로 큰 5% 늘어나 3천4백89억 달러를 기록했다.
- 이와 관련해 의약품 수입은 67억 달러 증가했고 금 수출은 68억 달러 줄어 들어 무역적자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사

## Reuters: US weekly jobless claims fall slightly; prior week's data revised up

###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약간 하락했다

-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간 하락해 여전히 해고 규모는 적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고용이 강하지 못해 미 가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 지난 1월 24일 끝나는 주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천건 감소해 계정 조정치로 20만 9천 건을 기록했다고 목요일 연방 노동부는 밝혔다. 그 전주의 청구건수는 1만개 상향 조정되어 총 21만건을 기록했다.
-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실업청구건수가 역사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들이 직원들 해고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 UPS와 아마존이 큰 해고를 단행할 예정이다.

기사

## [트럼프 행정부]

### Bloomberg: Trump, Democrats Make Some Progress in Talks to Avert Shutdown

### 공화당과 민주당, 셧다운 막기 위한 논의 진전

- 상원 민주당과 트럼프 행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논의가 민주당 요구쪽으로 가깝게 진척되고 있다.
- 물론 아직 협상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합의된 것도 없는 상태인데 합의가 없으며 연방 정부 대부분의 예산 집행이 토요일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 상원 민주당 지도자인 뉴욕주 출신 척 슈머는 연방 정부가 셧다운 없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 항목에서 국토안보부의 장기적인 예산을 제외할 것으로 공화당에 요구하고 있다. 슈머 의원들은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 이민 단속을 중단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기사

## [무역 전쟁]

### YahooFinance: US ambassador warns of China's growing manufacturing dominance

#### 주중 미 대사 중국의 글로벌 제조 지배력에 경고

- 주중 미 대사인 David Perdue는 오늘 목요일 미국과 중국의 보다 공정하고 상호 동등한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글로벌 제조 지배력이 향후 수년 내 더 커지게 되는 전망을 우려했다.
- 그는 북경에 있는 비즈니스 지도자들과 정부 지도자들 앞에서 “물론 중국이 제조 강국이 되는 것을 축하해야 하지만, 현재 유럽과 다른 국가들에서 중국의 수출이 다른 지역의 공장과 일자리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 그는 이달 중국미상공회의소 모임에서 “이 같은 현상은 다른 국가들에 건강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그는 트럼프가 올해, 그리고 시진핑도 올해 상대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4월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한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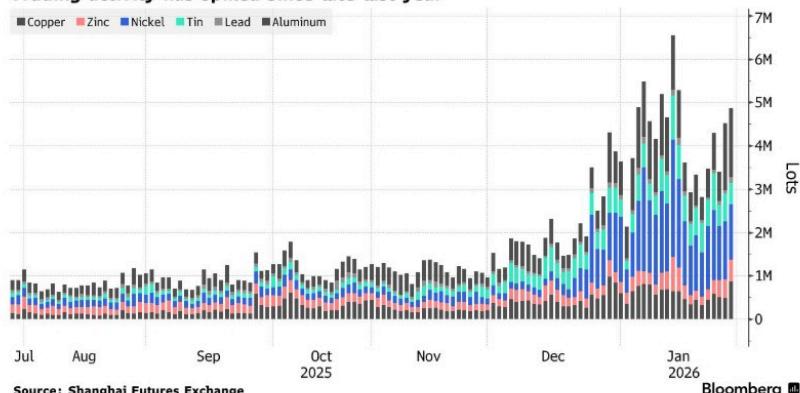
## [에너지]

### Bloomberg: China's Metals Mania Sends Copper Soaring Past \$14,500 a Ton

#### 구리 급등...1톤에 \$14,500...중국 수요 주도

- 구리가 지난 16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이 투자자들의 대규모 구매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 구리 가격은 11% 상승해 톤당 \$14,500로 치솟았다. 물론 달러가 회복하면서 가격은 주춤한 상태다.
- 산업용 금속인 구리는 거의 모든 전기 관련 제품에 사용되는데, 12월 초 이후 약 21% 올랐다.
- 이로 인해 오랫동안 가격 급등을 예측해온 구리 강세론자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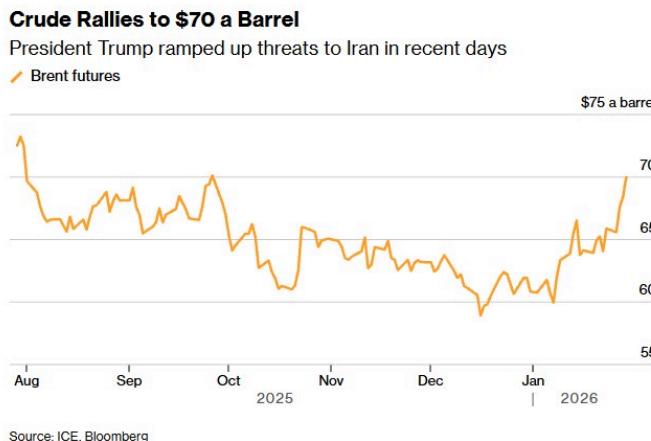
**Metals Mania in Shanghai Sends Trading Volumes to Record**  
Trading activity has spiked since late last year



기사

## Bloomberg: Brent Crude Hits \$70 a Barrel as Trump Ramps Up Iran Threats 트럼프의 이란 공격 위협에 브렌트유 70불 돌파

- 트럼프가 최근 이란에 핵 협상을 하지 않으며 군사적인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이 나온 가운데 브렌트유는 지난 8월 이래 처음으로 71달러를 돌파했다.
- 글로벌 오일 벤치마크는 5.1% 상승했는데 서부 텍사스 중질류도 66달러를 돌파했다. 현재 이 같은 유가의 불안한 가격은 이란의 원유 수출 중단이나 주요 원유 항로의 중단 등 갈등 리스크로 인한 것이다.
-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미 군함은 필요할 경우 빠르고 강력하게 이란 지역으로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격 상승은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 다음주 군사 훈련을 하겠다고 선박들에 경고했다는 보도가 알려지면서 부터다.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U.S. Companies Are Still Slashing Jobs to Reverse Pandemic Hiring Boom AI 등으로 미 기업들 계속 일자리 축소

- 아마존과 UPS 등 미 대형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데 아마존은 1천 6천 명을 줄이고 UPS도 올해 3만 명을 줄일 예정이다.
- 이들 대기업은 팬데믹 기간중에 놀라울 정도로 인력을 늘렸다. 그러나 이제는 대규모 채용을 줄이고 있다.
- 작년에만 해도 미국에 소재한 기업들이 총 1백20만 근로자를 줄였다. 이는 지난 2020ssu 아래 연간 단위로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이 같은 조치는 기술직과 창고직에서 크게 이뤄지고 있다.

기사

## YahooFinance: Elon Musk is betting Tesla's future isn't about cars at all 일련 머스크 “테슬라 미래는 전기차를 넘어선다”

- 테슬라는 지난 2010년대 중반까지 전기차를 주도했다. 세련되고 빠른 전기차로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짧다’는 통념을 없애는데 기여했다.
- 그런 테슬라는 현재 강력한 경쟁 구도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 테슬라 전기차는 2025년에 기록적인 수치인 9% 판매가 줄었다. 중국의 경쟁이 강화되

고 미국은 전기차 세금 감면 프로그램이 사라졌다.

- 이제 일런 머스크는 테슬라의 미래가 전기차에 있지 않고, 휴먼 로봇에 있다고 믿고 있다.
- 어제 수요일 텍슬라 실적 발표에서 일런 머스크는 새로운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는 “이제 테슬라는 모델 S와 모델 X의 생산을 중단하고 자사의 Optimus 로봇을 더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 이들 전기차 모델 공장을 앞으로 Optimus 공장으로 전환해 장기적으로 연간 1백만대의 Optimus 로봇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